

한국어 ‘일치’ 현상의 문제점: -시-를 중심으로

최 제 웅 (고려대학교)

Arguments against “Agreement” Phenomena in Korean

Jae-woong Choe (Korea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대표적 일치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존대법을 살펴보고, 영어의 일치 현상과 한국어 존대법 ‘일치’ 현상을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적어도 최근 생성문법에서 영어나 인구어를 중심으로 도입, 활용되는 Agr 과 한국어 존대법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존대법과 공손법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둘을 연결하는 공통의 존대요소를 설정하여 일치현상으로 설명하려 할 경우 모순이 생겨난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는 존대법 자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0. 서론

영어에서 일치 현상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와 시제의 일치를 들고 있다. 한국어에도 이와 같은 일치 현상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 주요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존대의 -시-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한학성 1993 참고). 즉, 존대의 -시-를 형태통사적 일치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존대요소 -시-가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일치요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생성문법에서 논하는 일치자질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한국어의 -시-가 이러한 특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을 논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어말에 나타나는 ‘-시게’ 형 등이 한국어 존대법 이론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논한다. -시-가 일치자질이라는 주장에 ‘-시게’가 중요한 반례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반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를 포함하는 한국어 존대법 현상이 담화 책략이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1. 생성문법에서의 일치요소 (Agr)

Chomsky (1991, 1992)에 따르면 생성문법에서의 일치자질은 두 가지 주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¹ 첫째는, 이 자질이 문법성 유무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즉, 그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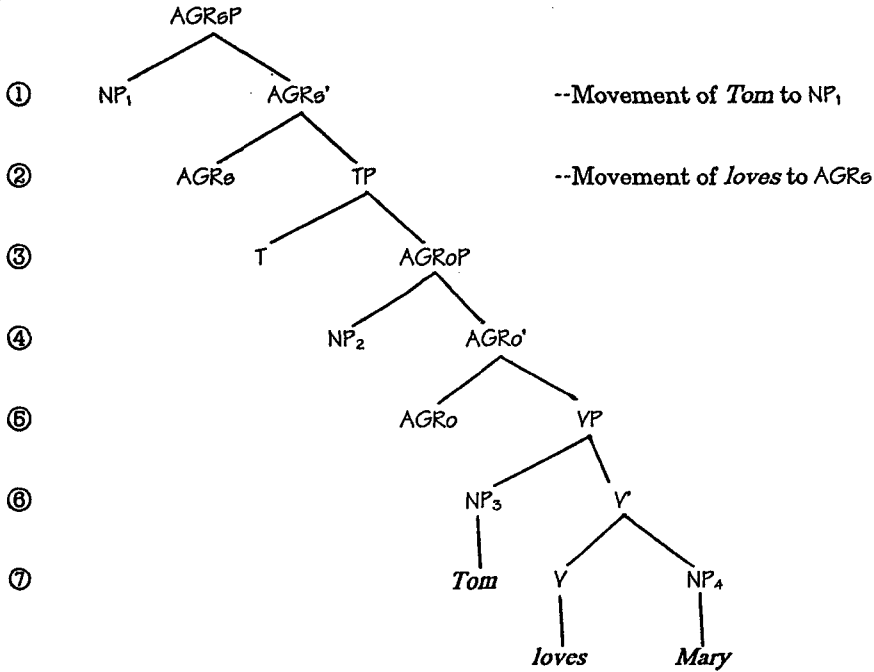
¹ Chomsky 이론에서 Agr 은 좀 특이한 변천을 겪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이 '자질점검 (feature checking)'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문장은 비 문법적이 된다.

구체적인 문장 및 이의 수행도를 살펴보자.

(1) Tom loves Mary.

(2)



(2)의 수행도에서 *he*는 NP1으로 이동을 하고, *loves*는 AGR_θ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NP1과 AGR_θ 사이의 Spec-Head 일치에 의해 *loves*의 일치자질들이 필요한 자질 점검을 받게 되어 위 문장은 문법적이 된다. 이러한 자질 점검은 필수적인 것으로 만약 동사가 *love*였다면 자질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자질점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자질 점검을 못 받은 요소를 포함하는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일치자질의 두 번째 특성으로는 일치자질의 순수 통사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즉 일치자질은 문장의 의미 해석과는 무관한 것으로 논리형식부에서는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시/의 수의성과 화맥의존성

한국어 -시의 통사적 특성이 과연 영어의 일치소 AGR에 상응하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INFL의 구성자질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오다가, Pollock (1989)이후 Chomsky (1992)에 이르기까지 Agr이 본격적인 범주로 취급되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바 있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는 (Chomsky 1995), 그 범주의 잉여성으로 인해 다시 단순한 자질로 환원되고 있다. 그러나 일개 자질로 보든, 아니면 범주로 보든 주어와 동사의 일치소로서의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일단 Agr을 범주로 보는 입장을 소개하기로 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가 국어의 일치소라는 주장이다. 주로 생성통사론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으로 최현숙(1988), 강명운(1988), 윤종필(1990), 안성호(1994) 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 논거는 선어말어미형 -시의 출현이 문장의 주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²

이와 반대로 -시를 영어의 일치소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임홍빈(1987), 김영주(1990), 윤정미(1992) 등에 의해 제기된 이러한 주장의 핵심 논거는 주로 영어의 일치 현상과 한국어 존대법상의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 즉 -시 출현의 수의성과 화백의존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논거는 실상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성문법에서의 일치소가 지니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논한 바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문법성 유무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시가 주어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수의성을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다음 예를 보자.

(3) 가. 김선생이 왔어.

나. 김선생이 오셨어.

동일한 주어 '김선생'을 두고 '왔어'나 '오셨어' 두 가지가 모두 자연스럽다는 점은 존대법을 '일치'현상으로 보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영어나 기타 인구어의 일치 현상은 형태적으로 일치자질이 파악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어 존대법은 해당 어휘의 형태만으로는 판정이 쉽지 않다. 존대법과 관련하여 (3)의 주어 '김선생'을 다음 몇 가지로 변형시켜 볼 수 있겠으나 어느 경우도 '-시'가 필수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4) 가. 김선생님이 나. 김선생께서 다. 김선생님께서

즉, 존대를 나타내는 표현 '님'이나 '께서'가 주어에 있다 해서 그것이 곧 '-시'를 동사에 추가해야 되는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특별한 상황, 즉, 화자와 주어와의 사회 위계적 관계 등에 대한 어떤 전제조건이 있을 때만 '-시'가 필요해 진다. 즉, 김선생에 대한 화자의 존대 정도에 따라 '-시'의 삽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김선생'이란 표현 자체에 존대 일치와 관련된 고정된 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명사나 동사 자체에 이미 일치소적인 특성들이 내재해 있다고 간주되는 영어와

² Agr 요소나 범주의 설정 여부와 밀접히 연결되어있는 것이, 한국어에 INFL 범주가 필요 한가 아닌가 하는 논의다. 이와 관련하여, Agr의 격부여기능 여부, 시제와 분리가능성 등이 많이 논의 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생성문법 이론 내적인 차원의 논의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Agr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한학성(1993), 김영주(1990) 등을 참조.

크게 대조된다. 예를 들어 (1)에서의 Tom이나 loves에는 화맥에 상관없이 3인칭 단수라는 일치자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은, 앞에서 보았듯, 통사부 내에서 자질점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어 존대법을 다룰 경우,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쓰이는 수많은 한국어 문장을 상당수 비문법적이라고 판정해야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게다가 (3), (4)에서 보듯이 존대는 유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존대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이분법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4가)나 (4나)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존대법을 영어의 일치 현상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려는 학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주요한 논거는 아무래도 ‘-시’의 출현 여부가 주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의 출현이 주어에 의해 유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일 때만, 또는 한걸음 물러서서, 그 밖의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변적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할 때만 유효하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화맥을 어떤 특정한 상태로 고정시켜 놓았을 때나 성립할 수 있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영어나 인구어에서의 일치 현상은, 화맥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전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어떤 공기제약이 있다 해서 그것을 곧 주어와 동사의 일치라고 보는데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주어와의 밀접한 연관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영어와의 단순 비교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시가 주어와 공기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어의 경우 주어-동사 일치란 대체로 표현과 표현 사이의 관계가 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 주어 표현과 -시 사이에 엄격한 공기제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한국어 존대법의 주요 요소로 화자와 주어 사이의 관계를 언급한바 있다. 이때 화자라는 개념과 주어라는 개념은 서로 동일 차원에서 논하기 어려운 것이다. ‘화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주어’는 언어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 엄밀히 말하자면, ‘화자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과의 관계다. 따라서 한국어 존대법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힐때 -시가 포함된 용언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주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김선생”정도라도 괜찮을지, 아니면 “김선생님”이 더 적합할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

³ 강명윤(사적 논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존대요소를 일치소 Agr로 설정하되, 통사적으로 자질점검이란 적극적인 기능이 아니라 단지 주어확인 정도의 소극적인 기능만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Agr은 통사적으로 별 의미없는 기능만을 지니게 될 것이다. 게다가, 또한 존대법이 일치현상이라고 보는 대다수의 견해는 이러한 소극적 기능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Agr로 설정하고 있다.

다.

3. 공손법과 존대법

한국어에서 존대의 양상이 용언의 요소 ‘-시’뿐만 아니라 문장 종결형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와 연관된 문제점은 존대법/존경법으로 알려져 있고 후자는 공손법, 또는 청자대우법이란 분야에서 다룬다. 본 절에서는 우선 존대법과 공손법 두 가지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존대법과 공손법은 일단 별개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존대법은 대체로 문장의 화자, 주어, 동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공손법은 청자와 문장 종결형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형상 문장의 동일 요소에 겹쳐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둘 사이는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고, 그 연관 관계는 어떻게 규명될 수 있을까? 우선 직관적으로 둘 다 화자를 낮추고 청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화용적 기능상 같은 범주에 속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⁴ 일반적으로 존대법 -시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어, 화자, 청자간의 상대적 위계이고, 또 공손법의 화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대적 위계이기 때문이다. 즉 같은 요소들 사이의 동일한 성격의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의미-화용적 기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 호칭의 대상이 되는 청자가 문장의 주어도 될 경우에는 그 둘 사이에 체계적 연관성이 검증될 수 있다.⁵ 다음 문장을 보자.

(5)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산책하셨어요?

(5)에서 ‘선생님’이란 호칭 사용으로 청자를 대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우에 걸맞은 문장종결형으로 ‘-어요’형, 즉 공대(두루높임)의 화제를 사용하고 있다. 동사 ‘오다’의 주어는 생략된 형태이나 이 경우 선생님이 바로 주어와 동일한 인물이 된다. 따라서 용언에 들어 있는 존경법의 ‘-시’와 공손법의 ‘-어요’는 생략된 이인칭 주어인 ‘선생님’에 의해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 존대법과 공손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⁴ 여기서 화자와 청자사이의 높낮이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로 보기로 한다. 즉, 청자를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화자를 낮추는 것이 되고, 반대로 화자를 낮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청자를 높이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가능하나 여기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두가지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즉 청자를 높이되 화자를 낮추지는 않는 경우와, 또한 화자를 낮추되 청자를 높이지는 않는 경우가 한국어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다음 절 논의 참고.

⁵ 황적륜(1975)에서도 이점이 지적되어 있다.

“When the reverent is identical with the addressee, the rules of using honorifics are relatively simple. The social determinants of honorific or nonhonorific are the same as those which enter into the choice of deferential or nondeferential speech levels.”

(6)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 선생님, 산책했어요?

(6)에서는 생략된 주어가 상대(아주높임)의 호칭인 ‘선생님’인데 반해서, 동사에는 ‘-시’가 없다. 괄호 속에 주어진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할 때, (6)은 (5)에 비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존대법을 위반하고 있다. 청자와 주어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은 같은 발화 내에서 동일 인물에 대해 공손법상으로도 높혀 주면서 존대법상으로는 낮추는 셈이다. 다음 문장도 공손법과 존대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7)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 선생님, 산책했니?

(7)은 공손법을 위반한 경우로, 역시 주어진 상황에 부적절한 표현이다.⁶ (5)-(7)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환경일 때, 공손법과 존대법이 서로 동일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자이면서 주어진 ‘선생님’이 화자에게는 높임의 대상이 되므로 거기에 적절한 용언형이나 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청자와 주어가 동일 대상이면서 낮춤의 대상이 될 때는 역시 존대법과 공손법상 둘 다 낮춤의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8) (선생님이 중학생에게) 산책했니?

(6)이나 (7)에서의 “산책했어요?”나 “산책하셨니?”와 같은 표현은 (8)과 같은 상황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일단 높임의 대상이 되면 공손법상으로도 존대법상으로도 높임에 걸맞은 형태를 사용하여야 하듯이, 반대로 일단 낮춤의 대상이 되면 두 용법에 모두 거기에 걸맞은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존대법과 공손법은 둘 다 동일한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동일 요소를 문법적으로 표현한다면, 손쉬운 방법은 [+존대]라는 자질을 설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⁷ 그렇게 하면 (5)와 (8)은 공손법으로도 존대법으로도 자질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 (6)과 (7)은 둘 사이에 [+존대]와 [-존대]의 자질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존대]자질을 설정하고, 같은 문장 내에서 그것들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할 경우, 다음절에서 보듯이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일치’현상의 모순

존대법상으론 [+존대]이면서 공손법상으론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존재한다. 다음 예문

⁶ (3)은 (2)보다도 더욱 더 부적절하다. 공손법이나 존대법이 동일한 성격임에도 전자가 후자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⁷ 존대법의 기술을 위해서는 대체로 [+/- 존대] 자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손법의 여러 화제를 나타내는 데는 양분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화제가 4-6 계층으로 나뉜다 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존대]로 나눌 수도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화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기로 한다.

을 보자.

(9) 자 안으로 들어가시게. (우린 손발이나 좀 씻고 올 테니.)

“들어가시게”의 어말형 ‘-게’는 화제상 중대표현으로 손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존대]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괄호 속 표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게’가 ‘-시’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9)는 주어는 높히면서 청자는 낮추는 문장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9)는 명령문으로 2인칭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즉 주어와 청자가 동일인이다. 따라서, 한 발화 내에서 동일인에 대해 존대법상으로는 [+존대]를, 공손법상으로는 [-존대] 부여하는 모순된 상황이 된다.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다.

(10) 가. 자, 김 선생, 인사 좀 하시지.

나. (도깨비는 와락 벋성을 내었다.) “어디 맘 내키는 대로 해 보시지?”

[존대]의 유무를 따진다면, 어말형 ‘-지’ 역시 [-존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럼에도 ‘-시’와 결합되어 있다.

십지어는 ‘-시’가 하대표현인 ‘-어’나 ‘-가’와도 결합할 수 있다.

(11) 어제 청주는 잘 다녀 오셨어?

(12) 그래 요즘은 안녕하신가?

(13) 그동안 바쁘셨나?

“오셨어”나 “하신가”와 같은 표현은, 아주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 따라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다. 만약 앞에서 하듯이 [존대]자질의 일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물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9)-(13)에서와 같은 문장들이, 청자를 한편으로 높혀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낮추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러한 문장에서의 일견 모순된 상황은 화자에 의해 의도된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모순을 통해서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의 사회적 위계와 친소관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될 수 있다. 앞에 나온 예문 (6)을 다시 보자.

(6)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 선생님, 산책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지라도, 상황만 조금 바꾸면 (6)과 같은 문장도 어렵지 않게 쓰일 수 있다. 공손법 상으로는 공대의 ‘-어요’를 쓰면서도, 존대법 상으로는 ‘-시’를 탈락시켜 [-존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모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6)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중요한 점은, “산책했어요”란 표현에서도 일견 모순된 상황은 화자에 의해 의도된 모순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는 존대와 관련하여 화자가 청자/주어에게 보이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5. 결 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어에서의 존대양상은 통사적 일치 현상이 아니라, 2 인칭이든 3 인칭이든 어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존대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어느정도 표현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14) 가. 여보, 김선생이 왔어.

나. 여보, 김선생님이 왔어.

다. 여보, 김선생님이 오셨어.

라. 여보, 김선생께서 오셨어.

마. 여보, 김선생님께서 오셨어.

바. ? 여보, 김선생님께서 왔어.

위의 문장들은 상황에 따라 다 적절하게 쓰일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자와 김선생 사이가 직장 동료라면 그 친소관계나 위계에 따라 (14)의 문장들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존대법상의 주어-동사 일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가)와 (마)를 제외하곤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존대법의 다양한 양상을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일치 현상을 한국어 존대법에 단순 확대 적용하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존대법이 영어에서처럼 표현과 표현사이의 공기계약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어휘를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곧 존대법상의 주어 연관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어를 포함해서 존대의 양상이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되는가 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윤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Ph.D. Dissertation, MIT.
- 강명윤 (1995). "현대 언어학 이론에 기초한 통사론 연구," 서강대 발표논문.
- 김영주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박진호 (1994). "선어말어미 '-시'의 통사구조상의 위치," *관악어문연구* 19.
- 손호민 (1992). *Honorific Agreement in Korean*, *언어학과 인지*, 한국문화사.
- 안성호 (1994). "A Note on Agreement," in Y.S. Kim, et. al. eds, *Explorations in Generative Grammar: A Festschrift for Dong-Whee Yang*, Seoul: Hankuk Publ. Co.
- 윤정미 (1990). "Verb Movement and the Structure of IP in Korean," *어학연구* 26:2.
- 윤종렬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Ph.D. Dissertation, Univ. of Texas, Austin.

- 임흥빈 (1993). “국어의 구구조”에 대한 토론회에서의 토론, *언어* 18:2.
- 최현숙 (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Ph.D. Dissertation, MIT.
- 한학성 (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Ph.D. Dissertation, Univ. of Texas, Austin.
- 한학성 (1993). “한국어의 AgrP와 NegP,” *언어* 18:2.
- 황적륜 (1975). *Role of Sociolinguistic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Ph.D. Dissertation, Univ. of Texas, Austin.
- Chomsky, N.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R. Freidin, 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 Cambridge: MIT.
- Chomsky, N. (1995).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Ms.
-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최재웅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jchoe@ling.korea.ac.kr Dacom: jchoe